

◇도원스님은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고 인과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고 강조하신다.

도원 스님은?



도원 스님은 어려서 몸이 몹시 약했다. 1928년 경북 영천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스님은 12살 때는 숨이 거의 넘어가 거적에 덮힌 채 하룻밤을 지내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스님은 그날 밤 어린시절 소풍갔던 수도사에서 참배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시작된 불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에 동향인 은사 고송 스님이 상좌를 구하러 마을에 왔을 때 부모님들의 권유로 고송스님을 만나면서 염매를 맺었다. 그 다음날 절로 들어와 버린 스님은 41년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 51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다음 월정사 · 파계사 주지,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포교가 잘못되었는지 불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교리보다는 기복에만 끄달린다고 걱정한 스님은 "스님들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신다. 그래서 스님은 매월 18일 대비암과 대구 은적사 초하루법회때 〈승만경〉, 〈유마경〉 등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 전하는 일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불보살의 화현을 곳곳에서 만나면서 살아왔다"는 도원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무심의 경지에 이르러 우주법계에 충만한 부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에 촌각을 아끼며 팔공산의 기운을 지켜가고 있다.

으로 옮겨온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 23년 동안 파계사 주지를 맡았던 것에 대해 스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 "오래했지? 내가 명예에 탐착이 되어 너무 오래했어요. 하하하!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막급 이지. 그때는 파계사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파계사를 극락세계로 만들어 놨다 한들 내 본분사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상좌 보고는 주지 하지 말고, 참선 염불하면서 살라고 하지요." 파계사를 위한 23년은 오늘 스님의 더욱 첨저한 수행이 있게 하는 정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다. 아미타불 주력을 수행 삼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스님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탑을 세 번 돌고 간절하게 서원을 세운 뒤 마당의 큰 바위에 앉아 나무아미타불 주력 천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하루 일과 중 참선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아미타불 주력을 쉼없이 하고 있다고 하신다.

요새는 아미타불 주력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내 일상이야. 젊어서는 관세음보살 주력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아미타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좌선과 염불을 함께 하면서 늘 부처님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스님은 15살 되던 해, 은사이신 고송스님과의 인연으로 음력 삼월 삼짓날 절에 온 이후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처럼 따르며 익혀왔다. '마치 부처님을 뵙는 듯 눈이 부셨던' 고송스님과의 인연 이후 한암스님 회상에서 경학을 배우며 승려의 기본을 갖추어 나갔던 스님은 한암스님을 '선교를 겸비한, 청백가풍이 철저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한암스님은 중은 중노릇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지. 딴 생각을 내지 말고 스스로 발심하여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시줏물을 무섭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 수행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전부 남의 시줏물로 살고 있으니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는 오직 중노릇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거였지. 도량에 다니시다가도 쌀 한 톨, 팥 하나라도 일일이 다 주웠을 정도니까. 그렇게 검박한 생활을 하는 분은 처음 봤어. 당신 방에 가봐도 조그만 책상 하나뿐이고 식생활도 아침엔 죽, 점심은 밥, 오후에는 불식(不食), 철저히 지키셨지."

> "계율만 제대로 지켜도 살기좋은 세상 될텐데 안지키니 혼란 생겨요"

중이 출가를 했으면 참선, 염불, 경학, 대중봉사, 포교 다섯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한암스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선택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열린 수행의 기틀이 되었다. 도원스님은 또한 불교는 승속이 없고 장유가 없고 귀천이 없는 공부임을 늘 강조한다. 그리고 공부방법에 있어서도 참선, 염불, 주력 어느 것이든 길이 다르다 뿐이지 마지막 도착지는 같다고 가르친다.

"염불도 참선도 삼매에 들면 한가지야. 망상 다한 자리는 똑 같은 거니까. 매 순간 삼매 가운데 있으면 부처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지"

스님은 한암 스님을 모시고 있던 상원사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등의 경전을 배웠다. 도원스님의 경학은 그 깊이나 넓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러고 있지 않아. 벌써 절은 확인돌 가르친다고 나섰지." 아는 것이 없다는 스님의 부정은 겸손이기보다는 늘 새로운 정진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다른 표현으로 보였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만큼 스님은 종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개선책이나 해결책까지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원로스님들이 종단의 기본 골격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기에 누구보다 종단에 관심이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원로회의에서 집약된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스님은 늘 어른 노릇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원로들이 앞장서서 체계를 새롭게 잡아 주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교육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강원은 3~4백년전 선사 스님들이 순한문으로 하던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천해 돌아가는데 불교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현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없다는 거지. 현대의 빠른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나와야 해. 또한 행자교육 문제도 말만 행자교육이 부족하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은 없어. 행자시절에 승려 기본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근본교리도 모르면서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야. 이런 것도 종단의 어른인 원로들이 고민을 해서 행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어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계속되는 도원스님의 종단 걱정에서 실감한다. 스님은 "종단의 소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개인의 이익에 매이지 말고 종단 화합을 위한 큰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어른노릇 해야 하는데

다과를 앞에 놓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스님의 모든 말씀은 과일의 단맛처럼 술술 넘어갔다. 스님이 이처럼 받아먹기 좋은 쉬운 법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법문 하라고 하면 모두 어려운 법문만 해요. 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면 '아이구, 저 스님 선법문 하는구나' 하지만 법문이란 알아듣게 해서 깨우쳐 주자고 하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해 가지고 뭐하겠어. 선법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쉽게 알아듣도록 해주는 것만 못해요."

이어 스님은 "집착을 놓고 생사가 둘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을 공부해 왔는데 참선을 했든, 염불을 했든, 절을 했든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큰일이 아닌가?

스님은 놓치지 않고 중간 점검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불법을 생활화하자는 거지. 일상 생활이 불교화가 되어야지.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면 잠깐 앉아서 자기 하루를 돌아봐야 해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처님답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또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을 돌아보고, 일년을 살고 나면 일년을 돌아봐서 어떤 것을 못 살았고 어떤 것을 잘 살았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는 앞으로는 더욱더 부처님답게 살수 있도록 다짐을 해나간다면 중간 점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반조하는 정신이 있어야 불법을 생활 속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 일초스님

문득 계룡산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면 빛나던 눈빛으로 또랑또랑하게 글을 읽던 내 도반들과 그윽한 미소를 지닌 강사스님을 뵈올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동화사 강원시절에 난 강사 일초(一超) 스님의 시자를 자원해 세 철을 살았다. 그 당시 전국의 강원에서 가장 알차고 깊이가 있는 강의를 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으신 일초스님은 강사란 일상의 모든 삶이 경전 속에서 녹아 내릴 때라야 제대로 부처님말씀을 전할 수 있다며 항상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우선으로 하셨다. 그 분이 강의를 하시면 아주 난해한 논서들도 아름다운 수필처럼 가슴에 와 닿았고 편지글들은 마치 역사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처럼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어느 때 보아도 스님 방엔 불이 켜져 있다. 그 때마다 낮고 고즈넉한 경 읽는 소리가 어두운 밤길을 따라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아서 염화실 마루에 앉아 졸면서도 일어설 줄 몰랐다. 사실 내가 스님의 시자를 살았던 것은 나름대로 공공이가 있었다. 강사스님 방에 있는 많은 경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반 수업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방의 모든 책들을 섭렵했다. 그런

늦은밤과 새벽 경읽는 소리

난해한 논서 강의 수필처럼

데 문제는 점점 다른 책들을 읽고 싶은 욕망이 일어 나는 것이다. 그 당시 강원에서는 경전을 제외한 책은 외전이라 부르며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지금은 도서관까지 환출하니 지어 다양한 책들을 보며 공부할 수 있지만 20년 전엔 어림도 없었다. 몰래 읽다가 걸리면 무조건 정학이었다.

하루는 강당채 마루를 지나가다 보니 몇 명이 책상을 쌓아 놓은 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살그머니 다가가서 "뭐하는데?" 갑자기 묻자," 저리가라마. 난 또 입승스님인 줄 알았잖아." 허둥 대는 그들 손에는 당시 신부님과의 슬픈 사랑을 주제로 세간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던 〈가시나무새〉라는 책이 표지가 벗겨진 채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들려져 있었다. "어, 소설책이네? 오랜만이다. 나도 좀 보자." 겨우 졸라서 입주임 후에 그 책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그 책을 들고 매일 책을 읽던 강사스님 방에 들어가 걸레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책읽기 삼매에 빠져 그만 강사스님이 들어오신 것도 몰랐다.

"원욱, 뭐 하는고?" 순간 나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하필이면 소설책을 보다 들켰으니 정학은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보던 것 이리 가져오고 그만 나가봐라." 시자실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어찌나 불안한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묻으시면 출처를 대야할 내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 때 시자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강사스님이 부르셨다. "달이 좋다. 이리 나와 봐라. 공양간에 가서 양동이랑 바가지 가지고 나를 따라 오렵." 동화사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골바람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몹시 추워 사람은 물론 숲도 전각들도 심지어는 시간마저 얼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 바람이 몰아치는 이 추운 달밤에 나를 어쩌시려고 저러시나 싶어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표족한 수가 없으니 시키는 대로 개울가로 나갔다. 스님은 바짝 긴장한 나를 보고 웃으시면서 개울물을 퍼오라고 하셨다. 그 웃음에 나는 벌받는 게 아니구나 싶어 얼른 물을 길어왔다. 양동이 물을 받아든 스님은 갑자기 주지실 옆 작은 비탈길 아래로 쏟아 부우셨다. "이 추운 겨울에 공부하느라 애쓴다. 내 눈에 그 책이 뜨인게 달포쯤 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걸 보니 꽤나 심심한 모양이구나. 외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세속인연들을 다 털어내지 못한 마음자리를 가다듬게 하기 위함이야. 차라리 자연에서 즐기는 것을 하나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구나. 하인 시절에 우리는 이곳에 물을 뿌려 밤새 얼리고 다음날 아침에 신나게 미끄럼 타고 놀았단다. 내일은 강의를 일찍 끝낼 터이니 한판 재미있게 놀아보거라. 탈 것으론 가마니가 제일 좋지."

그 날밤 강사스님 하고 나는 개울에서 뜀을 펴다 비탈에 계속 뿌렸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우리의 작업은 끝났고 때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양동이랑 바가지를 내 손에 쥐어주시고 책 많이 보면 눈 버린다며 걱정스런 눈빛을 남기고 가시는 뒷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침이 되자 눈 내린 비탈길을 곱게 쓸어 놓고 반 스님들이랑 가마니에 대여섯명씩 올라타고 신나게 미끄럼 타며 아이들처럼 웃고 놀았다. 그 웃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계룡산 급이급이 메아리 치는 게 듣기 좋다며 흐뭇해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너무 그립다. 철없던 하인에게 꾸지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주셨던 일초 스님은 동학사를 떠나셨지만 가끔 방송을 통해 깔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나마 아쉬움을 달랜다. ■ 반야사 주지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 · 네팔 · 중국 · 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 일 정 :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기르-보다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니-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유람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 - 네팔 11일 상품가 2,190,000원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향발중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데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와얌부나쓰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쓰 불교사원

중국 - 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 599,000원

- 일 정 :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 출 발 일 :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 1,690,000원

- 일 정 : 인천-방콕- 양곤-바가-폼빠-바간-파간-마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 출 발 일 :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투바드 투어 TUVRD TOUR. CO. LTD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번지 현대리버티하우스 102-4호
Tel : 02-797-7686~7 / Fax : 02-798-3877

URL : www.gagatour.com
E-mail : master@gagatour.com